

2023 새해 이렇게

박홍률 목포시장

“새해 주력사업 통해 역동적인 경제도시 만들 것”



4차산업·수리조선·친환경선박·관광·수산식품산업 육성 박차 명품 교육도시·쾌적한 도시 환경·무안반도 통합에 역량 결집

“목포에 4대 주력사업을 통해 청년이 찾는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큰 목표를 향한 항해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어느 해보다 기대가 크다”며 “지난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 세운 계획들을 차근차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을 위한 4차산업 ▲수리조선업 및 친환경선박산업 ▲관광산업 ▲수산식품산업 등 4대 주력사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스마트그린산업 조성, 공공임대형 스마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목포스마트인재교육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수리조선업은 2024년 준공 예정인 해경서부정비장 건립에 맞춰 친환경선박산업과 함께 글로벌 신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중소형 선박 고출력 엔진 수리

업체 유치 등을 통해 육성할 방침이다.

관광산업은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를 목표로 해안선 주변 중앙가 마스터플랜 수립, 유달·만호동 종합 활성화 계획 수립,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상품 확충, 목포역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삼학도와 내항 간 아트브릿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레포츠 체험공간 조성, 드론라이프쇼와 해상낭만쇼 개최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한다. 또 오는 10월과 11월 열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힘쓰는 한편 2028년 세계섬엑스포 유치, 국제수산식품박람회 등 대형 행사 개최도 추진한다.

수산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수산식품산업의 전주기 체계가 될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하반기에 착공하고 대양산단을 김산업 특화단지로 육

성한다. 이를 위해 마른길 거래소를 설립·운영하고,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에 추진해 김산업을 효자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박 시장은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전남 서부권 진로진학 상담센터 개소, 원도심 중·고등학교 옥암지구 재배치 등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축하금·영아수당 확대, 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 공공어린이 돌봄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이와 함께 어르신 무류·백내장 수술비 지원, 바우처 택시 등 노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친다.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써 어촌뉴딜 300사업·외달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녹색 레일길과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 주민 주도로 농수산물 구매하기 운동, 자매결연, 일손돕기 등을 펼쳐 유대감과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시스템 연계 등 관광·경제 분야를 협력한다. 의대 유치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건립을 목표로 목포대학교 등과 공고한 협력체계에 대응한다.

삼학도 호텔 건립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공공대를 형성하면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 박 시장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광, 경제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막힌 길은 뚫고, 없는 길은 개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아가고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함을 전제,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극 소통하며 해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3년에는 시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로 희망찬 도약의 새 시대를 열겠다”면서 “막힌 길은 뚫고, 없는 길은 개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재정집행률 85.8% ‘군 단위 1위’

1조1385억 집행 ‘역대 최대’...현안사업 추진 ‘청신호’

해남군이 2022년도 하반기 재정집행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재정집행 1위 달성은 전남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해남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상액인 1조 3274억원 중 1조 1385억원(85.8%)을 집행했다.

이같은 집행률은 전남도 22개 시군 뿐 아니라 전국 동종규모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도 최고 실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서 하반기 목표액 1378억원 대비 734억원을 초과 집행, 153.3%의 집행률을 달성해 국

내외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부서 자체 점검회의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집행률을 높여왔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전담을 수시 점검해 각종 물품 및 공사 대금의 선금 지급과 연내 공사 마무리 등 지출 확대를 극대화했다.

그동안 해남군은 매년 늘어나는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재정 집행률도 동시에 높아져 현안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지난해 1조 3217억원을 운용해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률 또한 2017년 66.7%에서 지난해 85.8%까지 높아졌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3년에도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 개항 이래 첫 전국체전 개최 준비 ‘착착’

박홍률 시장, 주경기장 건립 현장 찾아...6월 완공 목표
10월 전국체전 개·폐회식...11월 전국장애인 체전 예정

제 104회 전국체전을 앞둔 목포시에서 주경기장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일 새해 첫 사업 방문지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완공은 물론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가 열릴 예정인 목포종합경기장은 대양동 일원에 연면적 2만 648㎡, 지상 3층, 관람석 1만 6468석의 규모로서 지난 2019년 12월 착공했다.

올해 6월까지 주요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인데 현재는 잔디식재 및 트랙공사를 위한 토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개항 이래 최초로 목포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국가 단위의 스포츠 대축제인 양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힘을 모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19일 목포시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되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제104회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목포시 제공>

11월 3~8일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열린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광군, 농업인 실용교육

9~16일 읍·면 1000명 대상

영광군이 오는 9일부터 군서면을 시작으로 16일까지 각 읍·면에서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해 농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영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초 실시하는 농업기술센터 교육으로 올해는 최근 문제가 되는 가뭄대비 및 주요 작목별 생산비 절감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교육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면 교육으로 읍면별로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 또는 복지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본적 불금 등록 농업인들의 의무교육인 공익직불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읍면별 교육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350-4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종수 기자 jylee@kwangju.co.kr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이 새해 첫 위판이 열린 동부위판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해 풍어·무사안녕 기원” 목포수협 위판 초매식

2023 계묘년 희망찬 한 해의 시작을 여는 목포수협 위판초매식이 3년만에 2일 오전 5시 새해 첫 선이 경매가 열린 목포수협 동부위판장에서 개최됐다.

초매식 행사에는 목포수협 임직원과 어업인을 비롯한 박홍률 목포시장, 김일익 국회의원, 문자복 목포시장, 조옥현 도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계묘년 새해 어업인들의 풍어만선과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또 지난해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판금액 1800여억원 달성하는데 기여해주신 어업인과 수산관계인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며, 우수어업인과 중도매인 및 항운노조 등 위판관계자 40여명에게 포상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지역인재육성 군민들의 열망 느꼈다”

신안군 이상배·이인숙 부부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신안군 팔금면 진교리에 거주하는 이상배·이인숙 부부가 지난 2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박우량)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사진>

이상배·이인숙 부부는 농업과 염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상배씨는 전 팔금면 전일염작목반 대표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상배씨는 “군청 로비에 있는 명예의 전당을 보며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을 느꼈고 이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기탁을 결정했다”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이사장은 “농사일과 염전일로 쓰셔야



할 곳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을 쾌척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마음을 잘 전달하여 장학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기탁식 열려

군민·사회단체 등 900여만원 정성...2008년부터 90억 지급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군민들과 사회단체 등이 최근 장학금 900여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장학금은 ▲전 진도군의회사무과장 박우광 2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200만원 ▲진도군골프협회 156만원 ▲고군면 지막리 문곡 김갑용 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도군협

의회 100만원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100만원 등이 기탁했다.

한편 장학금 기탁 정기 후원 회원은 1만원 이상으로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등이며, 자동이체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탁 문의는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061-540-3243).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세열급

“고객 만족 최우선...사람 중심 경영 구현”

운영일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는 고객 중심 경영을 펼쳐 궁극적으로 사람 중심의 경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운영일(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은 “조직 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농어민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례출신인 윤 단장은 전남대 농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공사에 입사해 영산강사업단에



서 실무자 및 부장으로 17년을 근무했다. 나주시 지역개발부장, 전남지역본부 기반관리부장, 장성지사장, 본사 안전경영실장을 역임했다.

윤 단장은 특히 산업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안전 전문가로서 안전경영실장으로 근무하며 체계적인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 재해를 크게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